

# 나주시-난방공사, 장성 SRF 야적장 침출수 갈등

### 나주시 "정상 빗물보다 오염 농도 수천배... 일부 중금속 성분 검출" 난방공 "인근 철도·고속도 차량 등 외부요인 복합적 영향 가능성"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장성군 복합물류터미널에 야적 보관 중인 비성형 SRF연료의 품질 적합성 여부를 놓고 벌이는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나주시는 지난달 15일 장성군 복합물류터미널 야적장 긴급 점검을 통해 연료더미 침출수 시료를

채취, 전문기관에 검사·의뢰한 결과 정상 빗물 대비 BOD 등 오염 농도가 수 천배에 달하고 일부 중금속 성분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 6일 나주시의 야적장 오염 침출수 성분검사 결과 발표에 대한 반박

자료를 내고 "하수방류 지점에서 채취한 시료는 타 빗물과 혼합된 시료로 순수한 야적 현장의 침출수로 볼 수 없다"며 "야적장 인근 철도, 고속도로 차량 등 외부 요인, 복합적 영향에 따른 배수로 오염 가능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나주시는 지난 10일 한국지역난방공사 해명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의 주먹구구식 답변으로 논점을 흐리고 있다"고 평가 절하하고 신속한 연료 품질검사와 시민의 검사 참관에 따른 투명한 결과 공개를 재차 촉구했다.

야적장 인근 철도, 고속도로 차량 등 복합적 오염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호남고속도로, 고창-담양 간 고속도로는 야적장과 3km이상 떨어져 있다"고 일축했다. 시는 또한 "지난 6월 8일 공문 발송, 10일 현장방문을 통해 야적장 현장 점검을 재차 요청했으나 난방공사에서 불응했다"며 지난달 15일 야적장 긴급 방문에 대한 절차적 당위성도 강조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번 침출수 검사 결과 발표는 여론 호도가 아닌 실제 품질검사 누락과 장기간 노

천 보관에 따른 연료 품질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어 공정·신속한 검사 실시를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난방공사 측은 빠른 시일 내 검사 과정과 결과를 지역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빛가람혁신도시 주민 등 나주시민 200여명은 지난 6일 세종시 환경부 청사 앞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 '장성야적장 침출수 쓰레기 연료 품질검사 방임 환경부 규탄 상여 집회'를 가졌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n@kwangju.co.kr

## 강진군 체류형 관광지 조성 'K-STAY 호텔' 문 열어

### 48객실·연회장 등 갖춰

강진군이 체류형 관광지 조성의 일환으로 설립한 'K-STAY 호텔'이 문을 열었다. 강진군은 현진개발(주)과 관광숙박시설 건립을 위한 MOU 체결 후 지난해 1월 호텔 공사에 들어가 지난 6월 24일에 준공했다. 오는 16일 오전 11시 호텔 오픈 기념행사가 열린다. 호텔은 대지면적 4243㎡, 건축면적 1077㎡ 규모로 4층(48객실) 높이로 군동면 삼신리에 조성됐다. 1층은 프론트와 연회장, 레스토랑, 비즈니스센터, 카페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2층부터 4층까지 객실이 마련돼 있다. 객실은 종류별로 스탠다드 더블과 트윈(9.8평)이 20객실, 디럭스(12평) 24객실, 패밀리트윈(15평) 3객실, 로얄 스위트룸(23평) 1객실로 이루어져 있다. 요금은 오픈기념으로 스탠다드 더블 6만원, 트윈 7만원, 디럭스 8만원, 패밀리트윈 9만원, 로얄 스위트룸 12만원이다. 강진군은 그동안 유소년 축구대회, 전국 사이



K-STAY 호텔이 강진군 군동면 삼신리에 문을 열고 지난 1일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강진군 제공>

클대회 등 다수의 스포츠대회를 유치해 참가 선수들과 관광객들의 방문이 많았지만 숙박시설이 부족해 고민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호텔 개장으로 고민을 덜 수 있게 됐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강진을 방문하는 관광객들과 스포츠 대회 참가 선수들에게 더 좋은 시설

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포스트 코로나 이후 국내여행 활성화에 맞춰 체류형 관광단지를 조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군민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 장성군, 대창지구 도시재생 예비사업 포문

### 주민 대상 사업 착수보고회 열어 도시 모습 유지 낙후지역만 개발

장성군이 장성을 대창지구 소규모 도시재생 예비사업 시행의 포문을 열었다. 장성군은 최근 장성을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지역 주민 30여명을 대상으로 사업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소규모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준비 단계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기존의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도시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낙후지역만 선별적으로 개발하는 정부 정책이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장성군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주관 '2021년 도시재생 예비사업' 공모에 장성을 대창지구가 선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들었다. 국비 포함 2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장성군은 '소프트웨어 사업'과 '하드웨어 사업'을 연계해 추진한다. 군은 경관디자인 교육·컨설팅, 주민공동체 프로그램·도시재생대학 운영 등 소프트웨어 사업을 통해 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계획을 구체화해 도시 디자인 구현(하드웨어 사업)에 적용할 계획이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대창동 주민들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통해 지역이 희망찬 모습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면서 "보다 많은 주민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가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 함평군 하반기 정기인사 직렬 타파

### 성과 능력 중심 발탁 인사 단행

함평군이 이상의 군수의 '청렴' 군정철학을 반영, 깨끗하고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해 주목을 끌고 있다. 함평군은 2021년 하반기 정기인사 요인에 따라 지난 5일자로 승진 75명 등 인사를 단행했다. 전보 130명, 파견 2명, 복직 16명 등 총 223명을 대상으로 했다. 명예퇴직, 공로연수, 교육파견 등으로 발생한 승진·전보 요인에 따라 대규모 인사가 진행된 것이다. 승진의 경우에는 직렬간 경력 등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를

바탕으로 성과능력 중심으로 발탁 인사를 했다. 이를 통해 전 직원이 직렬 한계에 갇히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 정착'에 주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행정직이 퇴직하면 행정직이 승진 대상이 되는 관행이었다면, 이번 인사는 개인의 성과와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무, 농업, 사회복지 등 다양한 직렬이 승진 배치됐다. 그동안의 고정관념과 한계를 타파해 혁신적이고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전보는 개인과 부서의 고충 희망을 동시에 고려한 부서 배치를 하되, 조직 안정성과 업무 성과 제고를 위해 개인의 역량과 전문성을 고려해 적재적

소에 배치했다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번 인사에서 함평군 개정 이래 첫 여성 총무과장(5급) 탄생 또한 눈여겨 볼만 하다. 총무과장 자리는 그동안 행정직 남성 공무원들의 전유물로 인식돼 왔다. 또 특정 분야에서만 장기근속 중이었던 직원들에 대해선 보직 순환 근무를 통해 새로운 업무의 경험을 쌓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군정 전반의 고른 발전을 꾀하는 한편, 만에 하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정청탁 등의 소지를 전면적으로 차단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군정 전 공직자들의 능력과 성과를 고려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단행했다"며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 직렬의 한계에 갇히지 않고 인사 상 각종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일 하고 싶은 직장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함평=황윤환 기자 hwang@kwangju.co.kr

## 나주시, 세지 멜론 침수 피해농가 복구 지원



지난 7일 농업기술센터,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나주시지부직원들이 세지면 멜론 농가 시설하우스를 찾아 수해복구와 수확 작업을 벌였다. <나주시 제공>

나주시가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세지 멜론 농가 복구 작업에 일손을 보태는 등 수해 복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나주시는 지난 7일 농업기술센터,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나주시지부직원 45명이 세지 멜론 농가(2개소) 시설하우스 복구 및 수확 작업을 벌였다. 이날 일손 돕기 참여자들은 침수 피해로 시름에 잠긴 세지면 오봉리 멜론 농가를 찾아 하우스 2개동

(3000㎡)에서 멜론 수확, 운송 작업을 완료했다. 조성은 나주시농업정책과장은 "피해 농가의 어려움과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동참해주신 농업인직원분들의 따뜻한 마음과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침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한 복구 지원과 병해충 예방을 위한 적기 방제 지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n@kwangju.co.kr

**광주문화신협 예금 한시모집**  
특판시기 : 2021. 7. 5 ~ 7. 23 (3주), 한도소진시 판매 종료

**유니온 정기예탁금 12개월 연 2.06%**  
(세전 / 만기해지)

① 신한이뱅크 어플 다운로드 후 조합원 가입 ② 상품물 → 유니온정기예탁금 ③ 가입신청

**파워 정기예탁금 18개월 연 2.0%**  
(세전 / 만기해지)

**출자금 1인당 1,000만원까지 비과세**  
(광주 복구 및 광산구 거주민 가입 가능)

**2020년도 출자금 배당률!**  
**2.97%**

출자금은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고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으며, 출자금 배당률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e-파란적금 36개월 2.0%**  
(은행권 전용상품) 세전 / 만기해지

**유의사항**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신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을 계약 하시는 경우 상품에 관한 중요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예탁금 및 적금은 신협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비과세종합적용 가능합니다.
-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 시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됩니다.
- 금융상품 관련 상담 및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신협 영업점 및 아래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